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3954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낸 것이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	3
8517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	5
7780 빛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	6
7577 고난의 금요일.....	8
6531 지옥으로 내려간 일. 루시퍼의 저항.....	9
5934 1954 년.....	11
5644 부활절. 부활과 죽음의 극복.....	12
6228 죽음에 대한 두려움.....	13
7086 예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은 자신의 가시를 잃게 되었다.....	14
1559 영원의 문은 죽기 전에 건널 수 있다.....	15
5952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16
7235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	18
7330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19
7352 나를 믿는 사람은.....	20
7398 빛의 나라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21
1927 죽음 후에 빛의 상태나 또는 어두운 상태.....	22
4291 빛의 나라에서 창조하고 조성하는 일. 인간의 눈으로 본적인 없는 나라.....	24
7290 저세상과의 간격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	25
7839 저세상에 있는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일.....	27
8204 저세상으로부터 온 성숙하지 못한 혼의 나쁜 영향력.....	28
5981 영의 나라의 문을 닫는다.....	29
6354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30
6397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나라가 아니다.....	32
6607 세상 앞에 고백하라.....	33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낸 것이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

B.D. No. 3954
1947년 1월 9일

너 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왜냐면 이 말씀은 자신을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계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무한 가운데로 끊임없이 발산된다. 이 능력은 자신의 창조물 안에서 형체를 입고, 자기 자신을 가장 개인적인 표현으로 말씀 안에 형

체를 입는다. 너희 심장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자신이 너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너희 사람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음성을 심장 안에서 음성으로 듣거나 또는 생각으로 받으면, 너희는 살게 되고, 영원히 죽음을 더 이상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중단하지 않고 창조하는 영이고, 쉬지 않고 역사하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은 그의 생명을 그 안에 가지고 있고, 절대로 종말이 없는 그의 능력을 증거하는, 영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창조의 작품이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능력이고, 이 말을 자신의 심장으로 영접하는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야만 하고, 그는 죽음을 피해야만 한다. 그는 스스로 창조하고, 생기를 부여할 수 있는 곳에서, 중단없이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왜냐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항상 지속적으로 기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인, 생명의 샘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쾌활하게 하면, 모든 무능력한 상태는 너희에게서 사라져야만 하고,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어떠한 연약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말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은혜에 합당하면, 너희가 이 은혜를 갈망하고, 너희 안에서 세밀하게 낮은 소리로 울리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는 증가된 힘의 공급을 의미하고,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생명은 충만한 능력을 갖는 일이고,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너희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일이다.

육체적으로 살기 위해 너희는 음식과 음료를 섭취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 영적인 삶도 똑같이 혼을 위한 음식과 음료가 요구된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신의 말씀을 통해, 혼을 위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한다. 그는 혼을 유지하고, 성숙하게 해주는, 혼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능력이 충만한 생명의 상태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양식을 혼에게 제공한다. 그는 너희가 살 수 있도록, 먹고 마시게 한다.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제공되는 양식을 자주 섭취하라. 이 양식이 이 땅에서 너희에게 제공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임을 알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땅의 자신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그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냐면 그는 너희가 영원히 살기 원하고, 너희 자신이 심장을 닫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느끼게 해줄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빠지지 않기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함을 받았다. 단지 나의 말씀이 너희를 이러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 말씀을 영접하라. 나의 말씀이 너희 자신에게 말하게 하라. 하나님 자신이 너희에게 베푸는 이러한 아주 큰 은혜를 의식하라. 왜냐면 그가 원래 초기부터 너희를 사랑하고, 영원히 너희를 얻기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는 내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 똑같이 원래의 성분이 사랑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 속했고 내 사랑의 힘이 계속하여 너희에게 흘러 들어 갔을 때는 내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최고로 온전했다. 너희는 능력과 빛이 충만했다. 너희는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있었다. 너희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너희는 모든 연관관계를 알았다.

이런 광범위한 지식이 너희를 축복되게 했다. 너희는 이제 모든 지혜로 역사하고 너희들 자신에게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했다. 왜냐면 너희는 자유의지로 역사하고 창조할 수 있었고 아직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전적인 조화 가운데 살고 있었다. 너희는 신적인 질서 안에 거했다. 나는 내 피조물들의 행복으로 인해 기뻐했다. 나는 모든 존재들의 자유의지 가운데 나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움직일 수 있게 하면서 이런 행복을 더욱 높여 주려고 했다.

왜냐면 그의 의지의 자유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안 했기 때문에 비록 존재들이 내 의지에 반대되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존재가 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의지에 따르면 그들의 축복을 끝 없이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축복을 끝 없이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내 의지의 반대로 행할 수 있는 이로써 존재가 불행하게 되는 반대의 결과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왜냐면 단지 내 영원한 질서 안에 남는 것만이 존재들에게 축복된 상태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질서에 대적하는 생각과 의지와 행동은 존재들에게 빛과 능력이 없는 자유가 없는 축복된 상태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를 주었다. 그러므로 존재가 타락하게 된 것은 자유의지의 결과이다. 그러나 존재에게 자유의지가 보장돼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의지는 신적인 존재라는 증거이기 때문 그들이 신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의지가 이제 바뀌어서 잘못 된 방향을 향하게 된 것이 바로 세상의 창조의 이유가 된 것이다. 왜냐면 이런 잘못 된 의지로 인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들이 자유의지 가운데 그들이 원래 가졌던 축복에 다시 도달하게 하기 위해 나를 다시 추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나로부터 창조 된 모든 존재에게 내 크고 넘치는 사랑으로 부어주고 축복되게 만들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영원한 질서의 근거를 두고 있다.

사랑은 항상 단지 사랑을 비추어 주기 때문이다. 단지 이 사랑에 어떤 저항을 해서 안 된다. 하면, 사랑은 역사할 수 없게 남는다. 그러므로 존재는 언젠가 그의 저항을 다시 포기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한때 타락한 존재들이 그들이 한때 나로부터 떠나간 것이 자유의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지 가운데 일어나야만 하는 다시 돌아 가는 길을 갈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내가 생명으로 불러낸 창조물을 거치는 끝 없이 긴 과정이 의도하는 것이다. 내 사랑은 영원히 중단되지 않는다. 내 사랑은 나를 떠나간 존재들에게도 뒤 따른다. 그러나 사랑은 그들이 귀환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은 다시 나에게 귀환하게 하기 위한 셀 수 없이 많은 수단들과 길들을 안다. 비록 존재가 영원한 기간 동안 나에게 저항을 할지라도 그러나 내 사랑은 한 존재도 포기하지

않는다. 존재는 그러나 언젠가는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면 나는 그들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축복되게 할 수 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 사람들은 이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영원한 구원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 관한 지식을 전달받아야 한다. 이런 지식은 어떤 사람도 만약에 그가 나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줄 수 없다. 왜냐면 어떤 사람도 가장 깊은 창조의 비밀과 영의 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은 한때 나로부터 타락한 것을 통해 한때 그들의 잘못 방향을 잡은 의지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 설명해 줘야 한다. 그가 만약에 내 의지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면 나에게 귀환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시작과 자신의 목표를 알아야 한다. 이런 지식은 단지 나 자신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질 수 있다. 내가 이 지식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미 너희를 향한 내 큰 사랑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인간으로써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인 너희와 나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너희의 사랑을 다시 얻기 위해 내 사랑은 나타난다.

너희에게 전해진 이런 지식은 너희가 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영원한 질서를 벗어나기 때문에 한때 떠났던 영의 세계에서 오는 증거이며 표식이다. 그러므로 너의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들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깨달음을 계시하면서 영의 나라로부터 분명한 증거를 너희 사람들에게 주면, 이 계시들은 단지 너희가 이 세상 밖의 나라인 너희의 진정한 고향과 연결되길 구하라고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능력으로 이를 추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이로써 아버지로서 그의 나라의 모든 영광으로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는 너희 창조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너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원초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현재 너희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되야 하는지에 관한 작은 빛을 너희에게 주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다시 내 자녀로 영접하기를 원하고 너희를 내 사랑으로 축복되게 해주기 원한다. 나는 너희의 사랑을 소유하기 원하고 너희와 영원이 연합되어 있기 원한다.

아멘

빛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

B.D. No. 7780

1960년 12월 24일

세상은 묶임 가운데 있다. 이 땅의 과정을 가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는 루시퍼의 세상에서 사는 어떤 사람도 사탄의 사슬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라. 사탄은 사람들을 묶고 있고 그는 사람들을 영원히 자유롭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그 안에는 단지 영원한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부터 그를 생성한 나를 향한 미움과 저항만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묶임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묶임을 풀고 사슬을 끊고 타락한 자들이 다시 높은 곳으로 도달하게 돕고 사람들을 그의 권세로부터 구속하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왔다.

내가 이 땅에 임한 것은 가장 큰 공훈의 역사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이런 불행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그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떠났던 나에게 인도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 오게 하는 길을 가리켜 주기 위해 나 자신이 그들을 공훈히 여기고 그들에게 빛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이런 타락한 존재들에게 어떤 작은 빛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빛 자신이 이 땅에 임했다.

영원한 빛이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가기 위해 아기 안에서 육신을 입었다. 아기 예수는 내 곁형체가 되었고 아기 예수는 내가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내 대적자와 공개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에게 돌아오려는 의지와 소원을 가진 혼들을 그로부터 얻기 위해 내가 사용한 인간적인 형체였다. 나는 이런 혼들을 위해 구매가격을 지불했고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희생했고 내 피로 내 대적자로부터 그들을 구매하여 자유롭게 했다.

그러므로 나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은 이미 특별한 일이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내 곁형체로써 나 자신을 섬겨야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최악 된 인류가 내 충만한 빛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빛이 자신을 가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아기 예수는 이미 특별한 빛을 발산했다. 그러나 단지 사랑의 삶을 통해 빛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이로써 내 가까이에서 거하는 일이 허용 된 사람들이 이 빛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누가 이런 내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나에게 이끌었고 그들은 그들의 왕에게 드리듯이 구유에 있는 아기에게 경배드렸다. 왜냐면 그들의 단순한 혼이 나를 깨닫고 나에게 경배했기 때문이다.

내가 태어나는 일은 숨겨진 가운데 일어났다. 왜냐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발산 된 영의 충만함이 가장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가장 깊은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심장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고 내가 태어남으로 그들의 희망이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몰랐다. 아기로부터 그들에게 내 사랑이 발산되었고 그들의 심장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거룩한 나타남에 사로잡혀 그들의 모든 성정이 예수에게 향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 앞에 구유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몰랐다.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로써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사랑이 깨어나게 하는 내 사명이 시작되었다.

나 자신이 인간으로써 살게 되었고 나는 모든 자연의 법칙에 순응했다. 목표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일인 이 땅의 과정을 나는 의식적으로 갔다. 한 동안 내 영이 역사하여 자신을 나타내었을 지라도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떠한 우월함도 없었다. 왜냐면 나는 나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너희 사람들에게 과제를 준 것과 같이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에게 모범이 되도록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육신을 영화시켜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야만 했다. 내가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의 삶이 나에게 주었다. 내가 인간으로 내 삶을 살았다면, 너희 모든 사람이 어린 시절에 내 실제적인 가르치는 일을 하기 전의 기간 동안 내가 행해야만 하고 행했던 것처럼 내 모범을 따라야 하고 너희 인간적인 육체를 하나님의 영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인간 예수 안에 거했다. 인간 예수는 자신을 가꾸어 내 거처로 섬겼고 그러므로 나는 인간 예수로써 충만한 영이었고 아버지 자신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으로 흐를 수 있는 영의 그릇으로 섬기려는 단지 진지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은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대적자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와 연결을 이루면, 나 자신이 사슬을 풀어주고 그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의 과정을 갔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여 그들이 이제 나에게 돌아오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하고 갈 수 있게 한다.

아멘

고난의 금요일.

B.D. No. 7577

1960년 4월 15일

너희는 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다. 나는 인간으로서 너희를 위해 희생 제사를 드렸고 너희의 죄 짐을 탕감하고 너희의 타락으로 인해 너희에게 닫혀 있는 빛의 나라를 너희에게 다시 열어주기 위해 끔찍한 고통 속에서 내 생명을 드렸다. 이런 희생제사를 내 안의 사랑이 드렸다. 이런 사랑이 단지 이런 공훈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왜냐면 사랑은 힘이고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인간 예수가 겪은 고난을 결코 측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비록 나 자신이 그 안에 거했을지라도 인간의 몸이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못했다. 왜냐면 그가 공의를 위해 큰 죄를 속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죄가 측량할 수 없게 커서 영원한 기간이 지날지라도 존재들이 스스로 죄를 속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존재들이 나에게 반역했을 때 그들은 빛으로 충만했었다.

인간 예수는 자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 이런 큰 죄를 알았고 그는 또한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런 죄가 헤아릴 수 없는 속죄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에게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쳤고 사랑이 이런 희생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또는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이 이런 희생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런 희생 재물을 영접했다. 나는 인간 예수 안에 거했고 그를 내 영과 힘인 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가 큰 죄짐에 상응하는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함께 하는 구원 역사를 행할 힘을 얻게 했다.

그는 죄짐을 해결하기를 원했고 공의를 위해 속죄를 행하기를 원했다. 그는 또한 인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인류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는 지를 알았다. 그의 혼이 자신을 나에게 희생 제물로 드렸다. 그의 혼은 그의 형제들이 깊은 곳으로 타락했을 때 나와 함께 머물렀고 그의 혼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드렸다. 왜냐면 그들 스스로가 더 이상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고 그들의 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혼은 이런 모든 일을 알았다.

나는 내 아들을 이 땅으로 보냈고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을 속죄하겠다는 내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내 아들은 자신이 맞이할 고통의 정도를 알았다. 그러나 그의 사랑이 그를 이끌었고 그의 사랑이 나에게 향했고 타락한 형제들에게 향했다. 그는 타락한 형제들을 나에게 다시 데려오기를 원했고 그는 이 땅으로 임해 인간으로 살았고 나 자신을 전적으로 자신 안으로 영접했다. 그를 점점 더 채워준 사랑인 나 자신이 이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정했고 이런 사랑이 단지 노예가 된 인류에게 향했고 그들을 내 대적자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릴 때까지 고난과 사랑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갔다. 그는 인류를 짓누르는 큰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끔찍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날이 오기 까지 십자가의 길을 갔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내 대적자의 보냄을 받아 그에게 분노를 표출한 그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이런 고통은 사랑의 힘이 그를 유지시켜주지 않고 사랑 자체가 그를 채워주고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 견딜 힘을 주지 않았다면,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런 사랑의 역사가 인류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내 사랑이 속죄를 행했다. 이로써 예수의 구속사역을 깨닫고 구속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났다.

나 자신이 사람들을 긍휼이 여겼고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구원 역사를 완성했다. 내가 초인적인 고난을 짊어질 사람의 형체를 택했다. 이로써 인류에게 내 긍휼의 역사를 나타냈고 사람들이 그들의 큰 죄를 깨닫고 이제 스스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분에게 그들의 죄를 가져가게 했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 용서를 구하면, 그들이 한때 나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로써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나는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아래로 옮기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런 모든 사람에게 이제 나에게 향하는 길이 분명하게 되고 이런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 분명하게 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빠짐으로 인해 닫혔던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아멘

지옥으로 내려간 일. 루시퍼의 저항.

B.D. No. 6531

1956년 4월 25일

내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후에 지옥으로 내려갔고 영원한 축복의 문으로 아직 들어가 지 못한 존재들을 구원한 일은 맞다. 왜냐면 이 문이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먼저 열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무수한 혼들이 그들의 구원의 시간을 기다렸고 나는 그들에게 인간 예수로 나타났고 그들에게 내 고난과 죽음을 눈 앞에 보여주었다. 왜냐면 그들도 자유의지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고백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

있던 사람들은 나를 깨달았고 내가 모든 사람에 의해 거절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이 거부했고 그들은 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거절했다.

이런 혼들에 대한 내 대적자의 영향력이 아주 강해 그들은 나를 단지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반역하여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여겼고 이런 모든 혼들에게 그들의 의지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내가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날 수 없었고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단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명과 완성된 구속 역사를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는 인간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야만 했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혼들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내 대적자는 처음으로 내 구속 역사의 결과를 의식하게 되었다. 그는 나를 고백한 혼들과 내가 그들에게 열어준 문을 통해 자발적으로 나를 따르기를 원했던 혼들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런 혼들은 내 대적자의 권세를 벗어났고 사슬을 풀었다. 왜냐하면 그런 혼들이 내게서 힘을 얻었고 나 자신이 그들의 사슬을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내 대적자는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더욱 격노했고 어둠에 대하는 빛의 싸움이 이제 비로소 제대로 시작이 되었고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과 영의 나라에서 격노한다.

나는 내가 임하기 전에 이 땅의 삶을 마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지옥으로 내려갔다. 올바른 삶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대적자의 권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내 대적자로서 나 자신에게 대항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그를 상대로 그가 묶고 있던 모든 혼들을 위해 싸웠고 그는 큰 부분의 자신의 추종자들을 잃게 되었다. 나는 모든 혼들을 위해 죽었고 모두가 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추종자들을 빼앗기는 일을 보고 내가 단지 사랑이 얻게 해준 그를 이긴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게 되었을 때 그의 분노는 끝이 없었다.

그도 사랑에 굴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권세와 그의 소유물이 여전히 아주 커서 내 사랑의 힘에 저항했고 이로써 내 사랑의 힘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그의 권세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고 그가 인간 예수의 사랑이 나와 연합을 이루게 한 인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주님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의 미움은 더욱 커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이제 옹호의 반대자가 나타났고 그가 그의 사랑으로 대적자의 추종자들을 대적자에게서 빼앗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존재의 자유의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내 대적자는 여기에서 아직 자신에게 유리한 해결책을 보았고 그는 이 땅이나 또는 영의 나라에서 자신의 희생자들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죽음 후에 지옥으로 내려갔고 그를 벗어나기 원하는 모든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 항상 또 다시 지옥으로 내려가고 그는 나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는 내 부름을 따르려는 혼들을 결코 강제로 붙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권세가 꺾였다. 그러나 이런 십자가의 죽음도 그의 저항을 꺾지 못했고 그의 증오와 그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 그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악하고 그의 본성은 사랑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그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없고 그는 그에게 남겨진 힘을 항상 부정적인 일을 위해 쓴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힘이 그의 역사를 점점 더 약화시켜야만 하고 사랑이 사랑을 위해 얻어야만 한다. 사랑이 생명이 없는 모든 존재를 끌어당겨 다시 생명으로 깨어나게 해야만 한다.

내가 지옥으로 내려갔을 때 한때 타락했던 존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 시작했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로써 사랑이 미움보다 더 강하다는 증거를 제공했고 사랑이 존재들에게 죽음을 가져온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명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생명이고 존재를 죽음의 상태로 몰아넣은 자는 패배했다.

아멘

1954 년

B.D. No. 5934

1954 년 4 월 18 일

부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면 그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말했다. 그들은 내가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믿었고 내가 실제로 진정한 하나님이었고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했다는 것을 믿었다. 나는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로써 나는 그들에게 "성전을 허물라 내가 3 일 후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한 내 말이 진리임을 증명했다. 나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쳤다.

그러나 내 부활이 단지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어 하고 사람들은 죽음 후의 삶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마친 모든 각각의 혼이 맞이하게 되는 죽음의 길을 갔다. 왜냐면 죽음 후의 삶을 믿는 믿음이 모두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선지자의 죽음을 가장 경건한 사람도 결국에는 죽는다는 예로 사용했다. 그들은 삶의 영적인 효력을 알지 못했고 혼의 부활을 의심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간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고 불편해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 가르침을 따르는 일의 영적인 효력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주인이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은 사람들을 살렸다. 사람들은 나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통해 나에게 죽음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것과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은 비록 이 땅의 삶을 마칠지라도 생명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이 땅의 육신을 부활시켜, 육신 안에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이 들어 있지 않음을 보여줬고 내가 영화되었음을 보여줬고 이로써 육신이 영적인 형체가 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다.

내 육체에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전혀 없었다. 왜냐면 끔찍한 고통을 통해 전적으로 정화되었고 모든 이 땅에 속한 것을 영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영적인 것이 전적인 생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체가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왜냐면 그 어떤 것도 육체를 이 땅에 묶어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육신의 죽음 후 다시 살아나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왜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과정을 모든 인류가 깨달아야 한다. 왜냐면 이를 깨닫는 일과 내 부활을 믿는 일이 내 신성에 대한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땅의 내 사명을 믿는 믿음과 이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실제로 진실로 죽음에서 부활했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나를 볼 수 있게 나타냈다. 이를 통해 나는 내가 사람으로서 죽음을 극복했다는 사실과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자가 구속

역사를 통해 영적인 옷을 입은 내 육체를 이 땅에 묶어둘 권세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했다. 이런 구속역사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 그러므로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을 받아 내 대적자의 세력을 벗어난 어떤 혼도 내 대적자가 묶어둘 수 없게 되었고 혼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혼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고 혼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면 혼은 그의 구속자가 살아 있음을 알고 그의 구속자가 자기를 믿고 자기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부활절. 부활과 죽음의 극복.

B.D. No. 5644

1953년 4월 5일

죽음을 기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너희에게도 또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으로 부활이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죽음은 극복되었고, 나는 살기 원하고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것과 같이 비록 육체의 겉형체가 그의 일을 중단하고, 사람이 죽더라도, 혼과 육체를 더 이상 죽음을 허용하지 않는 생명의 상태로 만든 모든 사람을 위해 생명을 구매했다.

혼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고 절대로 멸망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죽음의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실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두려워하는 일이 정당했다. 왜냐면 영원한 생명을 향한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영원한 생명을 향한 문을 열어, 혼이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만 했다. 십자가의 내 죽음을 통해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를 얻었고, 문을 열었고, 모든 사람에게 이 문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었다.

나는 나처럼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사람들이 스스로 무기력하고 어두운 상태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죽음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죽음의 상태가 힘과 빛의 상태로 대체돼야만 한다. 사람들이 내 대적자에게 묶여 의지가 완전히 약해졌고, 사람들은 힘이 없어 활동하지 못했다. 왜냐면 그들에게 측량할 수 없게 힘을 제공했을 사랑이 그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사람들을 자신의 권력 안에 확고하게 두고 있었고,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는 일을 막았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상태가 되는 생명을 위해 필요한 힘의 공급을 막았고, 사람들의 연약해진 의지는 죄의 결과였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큰 죄를 속죄했고, 이제 사람들을 위해 더 강한 의지를 구매했고, 내 대적자가 묶고 있던 사슬을 풀었고,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증거하는 활동을 하도록 도왔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은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죽음을 극복했다. 즉 내 대적자를 극복했다. 내 죽음과 노예가 된 존재를 향한 내 사랑의 역사를 통해 나는 내 대적자에게 몸값을 지불했고 이로써 너희를 구매했다. 너희는 이제 자유롭고, 내가 생각한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산다면, 너희는 다시 역사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죽음의 무덤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고, 어떤 권세도 너희를 더 이상 어둠 속에 가두지 못하고, 너희는 모든 육체적인 겉형체를 벗게 되고, 생명력이 충만하고 가

장 빛나는 빛이 있는 저세상의 나라로 자유롭게 들어가고, 그러면 너희도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너희의 혼은 더 이상 어떤 사슬도 알지 못하고, 단지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인 육체의 껍질체를 남겨두고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아직 성장할 수 있게 한다. 혼은 더 이상 어두움의 힘에 의해 억제될 수 없고, 자유하다. 혼은 어두움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너희 사람들에게 내가 죽음을 극복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 자신이 삼일만에 부활한 나를 향해 추구한다.

아멘

죽음에 대한 두려움.

B.D. No. 6228

1955년 4월 4일

모든 혼은 영원으로 향하는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어떤 사람도 이 과정을 피할 수 없고 모두가 언젠가 이 땅에서 거하는 일을 저세상에서 머무르는 일과 교환해야 하고 모두가 그들의 무거운 육체를 벗어야만 한다. 왜냐면 혼이 단지 저세상의 나라에 들어가고 모든 세상적인 것은 비록 혼이 세상적인 것들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지라도 이 땅에 남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저세상의 나라로 들어갈 때 기뻐하고 환호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은 또한 인간이 이 땅에서 산 삶에 따라 가장 큰 불행과 궁핍과 빈곤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영의 나라에서 머무르는 일이 또한 가장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을 퇴색시킬 수 있고 또한 이런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을 아주 어두운 환경으로 바꿔야만 하게 될 수 있고 혼은 이미 이 전에 이를 느끼고 따라서 가능한한 오랫동안 몸을 떠나는 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몸을 떠나는 순간을 을 맞이하고 어느 누구도 단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 이 땅에서 분리되는 시간은 영원으로부터 정해져 있고 혼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의 나라로 전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은 혼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면 혼은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혼이 무거운 이 땅의 옷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영의 옷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혼은 이제 영의 옷을 입고 자유롭게 축복되게 살 수 있게 되고 이런 축복된 운명을 마련해 준 그들의 창조주 아버지에게 찬양을 칭송을 드리게 된다.

이 땅에서 부름받는 날이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게 다가온다. 죽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이다. 그들은 죽음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런 공포를 없애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한다. 그들이 진지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언젠가 그들이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되면, 자신들이 합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지 공의로운 판단을 내릴 때까지 그들의 이런 불안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진지한 자기 성찰이 그들 자신을 변화시키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할 수 있다. 비록 그들이 아직 진정으로 믿을 수 없을지라도 자신에 대한 작업을 더 많이 할수록 그들 안에 죽음의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올바르고 공의로운 삶에 사랑을 행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믿음의 가르침은 더 이상 영접할 수 없게 보이지 않게 될 것이고 그는 전에는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

있던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한다. 왜냐면 올바르게 살려는 의지가 이미 그가 믿기 어려워하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옳고 공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거나 또는 느낀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의 감정에 의해 더 많이 인도를 받게 하면, 그는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는 자신의 죽음과 죽음 후의 상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더 침착하게 그의 죽음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이제 자신의 내면의 음성을 더 많이 따르고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믿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또한 자신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는 또한 죽음의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다.

아멘

예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은 자신의 가시를 잃게 되었다.

B.D. No. 7086

1958년 4월 7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럴지라도 그는 마지막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 순간이 실제 끝이 아니고 그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혼이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혼에게 사슬이었던 이 땅의 걸형체를 버리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이 내 뜻에 합당하여 그의 혼이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성장에 도달했다면, 이제 어려움 없이 저세상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소멸되지 않는 혼의 죽은 상태는 끝나지 않는다. 사람이 다시 말해 사람의 혼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게 혼이 무덤을 벗어나 혼의 진정한 고향의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혼이 소멸되지 않는 일은 바꿀 수 없는 법칙이다. 왜냐면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것은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혼은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영적인 존재이고 그러므로 혼은 육체가 죽을지라도 계속해 존재한다. 그러나 혼이 빛과 영광 가운데 육체의 죽음 후에 부활할 수 있는 일은 내 십자가의 죽음과 내 부활 후에 비로소 가능하다. 왜냐면 혼이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원죄의 짐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는 항상 혼이 피할 수 없었던 어두움이었고 무덤의 어두움이었고 이 상태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치우지 않은 무덤의 돌이 있는 상태였다.

다시 말해 이런 혼들에게 아직 속죄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들의 죄짐은 속죄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람 안의 혼은 어두웠고 혼들에게 죽음 후에 부활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었고 음산한 무덤의 밤이 혼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죽음이 혼들에게 끔찍한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3일만에 부활했 혼이 부활했고 단지 육체와 혼이 영의 옷을 입었고 육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성장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서 가능했던 것처럼 육체가 혼과 동시에 영의 나라로 같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영화되지 않은 육체만 버려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3일만에 부활했다.

나는 내 부활을 통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원했다. 나는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서 그들이 이 땅의 육신을 벗게 되면, 혼이 단지 거하는 장소를 바꾸는 것임을 그들에게 증명하기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자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은 단지 실제적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자신의 가시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이 내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얻은 은혜를 영접하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구원을 받게 허용하는 한 가지가 필요하고 이 전의 그의 원죄를 사함 받고 혼이 무덤의 어둠으로부터 밝은 빛으로 나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예수그리스도가 무덤에 돌을 치울 수 있게 만드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큰 죄에 묶여 있는 것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이고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 것이다. 그는 비록 그의 육체가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그가 아직 그의 죄의 무덤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내 품 안에 맡기고 그가 죽음의 순간이 임했을 때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 나에게 긴밀하게 부탁했다면, 그는 그의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잃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축복스럽게 잠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자신의 육체를 이 땅에 남겨 둘 것이다. 그러나 그의 혼은 부활할 것이고 혼은 빛을 향해 올라갈 것이다. 혼은 자신 주변에서 무덤의 어둠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혼의 손을 잡고 혼의 걸형체인 육체를 벗게 이끌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혼을 생명의 문으로 인도할 것이다. 혼은 죽음으로부터 자신이 부활했고 이제 자신이 영원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알 것이다.

인간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이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로 내가 보낸 존재로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단지 먼저 가는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약속한 것처럼 그들을 자신에게 데려갈 것이다.

아멘

영원의 문은 죽기 전에 건널 수 있다.

B.D. No. 1559

1940년 8월 8일

영원의 문이 열리는 사람의 이 땅의 삶이 반드시 끝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생에서 그는 이미 이 땅의 삶의 밖에 존재하는 나라를 보는 허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마치지 않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 인간이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성숙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땅 밖의 영역과 그곳의 거주자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일은 영원의 문이 항상 육체의 죽음으로 통과하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일부 이 땅의 자녀들은 영원한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장벽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그런 영역에 거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육신이 아직 이 땅에 묶여 있을 때에도 영원한 나라에 거한다.

이런 이 땅의 자녀는 또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단지 이 땅과의 모든 연결을 끊을 수 있는 순간만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영은 자신의 진정한 고향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의 영은 이제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의 의지가 허용했을 때 단지 들어갈 수 있고, 일시적으로만 거할 수 있었던 영역에서 끊임없이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가 이 땅에서 자신의 갈망이 그로 하여금 배회하게 한 영역에서 항상 거할 수 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의식적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난 후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거주지인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면, 그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했다. 그는 더 이상 저 세상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된 삶을 의심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는 그가 빛의 존재들의 역사를 깨닫고, 무지의 결과를 알고, 그가 저 세상의 영적인 존재들과 연결을 이룰 수 있기 위해,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기 전에는 이 땅의 그의 운명인, 자신의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빛의 존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그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은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사랑과 긍휼이 이미 이 땅에서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 땅의 자녀가 주님의 무한한 지혜를 증거하는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그는 스스로 이 땅에 영적인 지식을 전파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이 땅의 사람과 빛의 존재를 분리시키는 장벽을 허물었다. 그는 이 땅에서 이미 영원에 이르는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빛의 나라에서 사는 존재들에 의해 직접 제공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진정한 죽음의 정복자가 된 이 땅의 자녀에게 죽음은 모든 공포를 잃게 된다.

아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B.D. No. 5952

1954년 5월 9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이 말만으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증거하는 일을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중요성을 잊었다. 왜냐하면 인류가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생각이 없이 자신을 아버지께 향하는 다리로 묘사한 예수님을 거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의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단지 영과 생명이 없는 문자이고 사람들은 말씀의 의미를 의식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말하고 주님의 말씀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로써 아버지께 향하는 길을 찾지 못한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결과로 나타나는 확신을 가진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아버지께 향해 다가갈 의지가 없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버지께 향하는 길을 찾지 않고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자세가 멸망으로 영적인 죽음으로 이끈다. 그들은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 아래 머물고 그들이 높은 곳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곳에 머물게 된다.

사람들이 위를 향해 전혀 추구하지 않고 그들의 이 땅의 과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복음에 무관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설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에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일은 아주 불쌍하게 여길만한 상태이다. 아무도 그가 아버지께 귀환하기 위해 이 땅에 머문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에게 끊임없이 귀환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가 믿지 않기 때문에 굳어진 생각으로 거부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과 아버지 사이의 간격이 크지만 한 분이 인도하고 전해주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고 아버지께 향하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다리를 건설했고 이런 분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런 분이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게 만들기를 원하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먼 가운데 이 분을 지나친다. 비록 이런 분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자신에 대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진리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가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것을 활용해야만 하고 삶의 목적인 아버지와 연합하는 일에 성공하는 이 땅의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구해야 한다. 아버지와 연합이 비로소 축복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삶을 보장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무관심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 어떤 운명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유일하게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을 도피처로 삼지 않음으로 무엇을 얻지 못하게 되는 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무엇을 얻지 못하는 지를 알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비록 말씀이 위로부터 전해질지라도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자원하여 귀를 여는 다른 목소리인 세상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구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러므로 죄와 죽음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신적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짐을 드리기를 위해 그의 십자가 아래로 도피한 사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영접받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를 붙잡아 자신에게 끌어올린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죄짐을 넘겨받고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그를 구원함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동시에 자신의 삶의 과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물질적인 곁형체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마지막 의지의 결정을 한 것이다. 왜냐면 인간으로써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는 자유한 영적인 존재로 그의 진정한 고향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물질의 곁형체를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부터 도피하려는 그의 의지를 통해 모든 영적인 사슬이 끊어진다. 그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제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택한 것은 생명으로 깨어나게 된 것과 같은 의미이다.

왜냐면 그는 이전에는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 무기력하고 죽음의 상태에서 어두운 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산다. 그는 자유한 가운데 일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밝은 영을 가지고 있어 그가 자신의 삶을 이제 이 땅에서든지 또는 저세상에서든지 올바르게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고 단지 자유를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은 동시에 한때 그들이 거부했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한 죄가 이제 예수가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서 자신의 피를 흘린 후에 그러므로 사람 혼자서는 절대로 공의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는 공의를 만족시킨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인간 예수 안에서 한때 자신을 떠난 죄에 대한 속죄를 행했다.

그는 인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고통이 충만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서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이런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위해 고난당하고 죽기 위해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간 아주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한다.

사람들은 단지 이런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세주인 그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들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진실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고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오면, 자유로운 존재로서 영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죄짐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 사람들에게 쉽게 된 것은 확실하다.

왜냐면 사람에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가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도움을 구하고 그가 자신의 죄짐을 가지고 그가 단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예수의 약속대로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는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생명은 단지 자유와 공의 가운데 가능하다. 이는 큰 죄짐을 사함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축복될 수 없다. 왜냐면 그가 자신이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자신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B.D. No. 7330

1959년 4월 9일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내 대적자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모두가 내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단지 원하면,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나에게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의 제공이 없이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의 삶에서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고백하는 일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구속사역의 문제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입장과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게 요구해야만 한다. 그가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성공하기 위해 받은 이 땅의 삶에서 성공하기 원하면, 그는 언젠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결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또 다시 나로부터 요청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향하게 인도 받는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그의 눈 앞에 둔다. 이 십자가가 그에게 주는 인상이 그의 영원 가운데 계속되는 운명을 정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보게 한다. 그들은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떠난다.

왜냐면 십자가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지나쳐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가 죽을 때까지 뒤따를 것이다. 십자가는 항상 그리고 항상 또 다시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다. 자신이 자주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이 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할 때 비로소 이 길이 그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면 그는 그곳에서 삶의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아직 결정적인 개념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그는 내 대적자의 사슬로부터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아직 자신의 원죄에 대한 속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죄를 사해주기를 구하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속죄를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은 이 길을 절대적으로 가야만 한다. 왜냐면 단지 이 길만이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떠났던 그를 다시 나에게 인도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도 자신의 삶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가 자신의 이 땅에 과제를 단지 세상 일을 함으로 성취한다고 믿으면, 그는 언젠가 비참한 가난 가운데 죄짐을 지고 능력이 없이 저세상에 도달할 것이다.

그가 구속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까지 그는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예수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는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서 그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 왜냐면 예수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겉형체 안에 나 자신이 거했다.

나 자신이 너희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했다. 나 자신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예수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 나라로 영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그리스도를 지나쳐 버리는 사람은 나를 지나쳐 간다. 그의 운명은 그가 언젠가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려는 결심을 하기까지 다시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어둠과 고통이 될 것이다.

아멘

나를 믿는 사람은.

B.D. No. 7352

1959년 5월 2일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 약속의 말씀을 통해 너희 사람이 단지 입으로 고백하거나 또는 내가 인간 예수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간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으면, 너희가 단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인간 예수가 존재한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으면, 너희가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단지 어린 시절부터 가르침 받은 것을 믿으면, 너희가 아주 자주 잘못 된 결론을 이끌어 내게 한다.

왜냐면 너희가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의 과정을 갔음을 믿는 일이 나에게 아직 내 신적인 사랑의 가장 큰 공훈의 역사에 대한 내적인 자세를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은 너희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를 통해 내가 구속한 사람들에게 속하기 원하는지 나에게 증거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위해 너희에게 요구하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는 먼저 언젠가 선명하게 이해해야만 한다. 가르침을 저항하지 않고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왜냐면 올바른 믿음은 먼저 이런 가르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믿음은 믿음에 대한 진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을 요구한다. 사람에게 진리에 도달하려는 선한 의지가 부족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없을 수 없는 사랑이 그에게 없으면, 사람의 생각의 결과는 잘못될 수 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올바르게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올바른 믿음이 사랑을 통해 비로소 생명으로 깨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항상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을 기대할 수 있고 절대로 사람이 믿어야 할 진리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없는 사람이 단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침 받은 대로 내 이 땅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가르침에 대한 내적인 입장이 없으면, 그는 절대로 "그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내 약속을 근거로 내세울 수 없다.

왜냐면 그가 사랑의 삶을 살지 않고 그에게 올바른 진리에 도달하려는 갈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의 무리에 자신이 속한다고 스스로 믿는 아주 많은 형식적인 기독교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약속에 희망을 걸고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왜냐면 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축복되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모든 진정함으로 선명한 결정을 요구한다. 나는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를 따르게 요구하고 예수가 살았던 것처럼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을 살기를 요구한다.

그들이 이렇게 살면, 그들은 이런 사람과 그의 실제적인 사명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비로소 지금까지 단지 그들의 이성이나 심장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가르침에 대해 생각을 통해 스스로 입장을 정한다. 그러면 사람은 이제 비로소 그에게 교육을 통해 전해진 가르침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들의 믿음은 믿음 안에 능력을 가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되어 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과 그의 구속사역의 큰 문제에 항상 깊이 들어 갈 수 있다. 그러면 비로소 믿음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주기 위해 내가 얻기 원하는 대로 된다. 왜냐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써 나에 대한 자세가 비로소 내 약속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진지하게 질문하면, 몇몇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인정하고 딱 잘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정도로 거만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신 안에 인간 예수의 사명에 대한 그리고 인간 예수 안에서 너희의 구속을 위한 목적으로 거한 내 성품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한다. 다시 말해 너희가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 원하면, 너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생명력이 있게 믿는 믿음에 도달하기 원하면, 너희 생각과 너희 의지가 일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고 생명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빛의 나라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B.D. No. 7398

1959년 8월 26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모든 사람은 그와 생명력이 있는 관계를 맺은 사람은 올바른, 행동하는 크리스천이고 형식적인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은 빛의 문을 향해 간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아는 일은 행복하게 해주는 생각이다. 왜냐면 그러면 그에게 빛의 나라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음 후에 그를 기다리는 저세상에 거할 때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에게 속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연결은 긴밀한 연결을 의미한다.

이런 연결은 항상 사람이 항상 사랑 안에 사는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가는 곳에서 이뤄질 것이다. 이런 사람은 사랑을 통해 밝은 영으로 있을 것이다. 그는 구속사역의

의미를 알 것이다. 그는 예수의 이 땅의 사명을 올바르게 깨달을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의 걸형체로서 완성한 긍휼의 역사에 동참하기 원할 것이다.

왜냐면 이런 큰 구속역사와 그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모든 심장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모든 진실함으로 영원히 그에게 속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 영을 통한 깨우침이 요구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 비로소 영이 깨우침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랑의 삶이 요구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 이 땅의 목적과 목표에 합당하게 살려는 의지가 요구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선한 의지가 요구 된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긴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모든 심장으로 그에게 속한 사람은 그가 죽을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그를 고백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열어준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생명력있게 연결이 되기 위해 깊은 믿음을 전제로 한다. 이런 믿음은 바로 다시 사랑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의 삶을 사는 일이다. 이런 사랑을 통해 믿음이 생명으로 깨어나고 사람은 이전에는 그가 아직 질문하고 의심하던 것에 대해 이제 확신을 갖는다.

이런 믿음을 자신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진실로 행복해하며 찬양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은 마치 바위와 같다. 이런 믿음 위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 다시 말해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가 세운 교회에 속한다.

그러면 이런 깊은 믿음에 도달한 사람은 이미 축복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왜냐면 이 땅에서 어떤 일도 그를 놀라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자신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분의 팔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그의 팔 안에서 안전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죽음이 더 이상 그를 놀라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단지 그의 외적인 걸형체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력이 있게 믿는 모든 사람의 운명인 빛과 축복이 있는 다른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죽음 후에 빛의 상태나 또는 어두운 상태.

B.D. No. 1927

1941년 5월 20일

너희가 이 땅의 삶을 마친다면, 너희와 너희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난다. 육체의 눈은 닫힌다. 이제 보는 것은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각각의 혼의 성장정도에 따라 혼은 자신의 주변의 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영을 추구하여, 혼이 이미 어느 정도의 성장에 도달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혼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면, 혼은 단지 적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영의 눈이 아직 닫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혼의 주변은 어둡고, 빛이 없게 될 것이다. 혼은 모든 것을 그림자처럼 보고, 이제 마치 시력을 잃어 갈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절망적인 상태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슬픈 상태이다. 혼의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혼은 멀리 떨어져 있다. 혼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과 같은 상태에 있는 혼을 만날 때까지 평안이 없이 방황을 한다.

혼들은 이제 그들의 형편을 원망할 수 있고, 그들의 깨달음 정도에 따라 원망을 한다. 혼은 원망하며 불평하거나 또는 전적으로 무관심한 가운데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혼들이 서로 만나, 그들 서로 간에 조언을 하며, 빛이 없는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숙고하는 일이 그런 혼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이러한 갈망이 혼들 안에서 활발하다면, 빛의 존재가 자신들의 빛의 형체를 가리고 나타나, 혼들에게 그들의 형편을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조언을 해준다.

혼들이 전적으로 강박하지는 않고, 빛의 영역에 도달하는 대신에 항상 어두운 영역에 도달한다면, 이런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혼들은 모든 가능성을 붙잡는다. 이런 빛이 없는 나라에 많은 환란과 고난이 있다. 이로써 몇몇의 혼들이 자신 안에서 도우려는 갈망을 느끼고, 이제 고난을 줄이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게 된다.

그러면 혼이 이 땅에서 하지 않았던 사랑을 행하는 일을 시작한다. 이런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영의 눈이 볼 수 있게 되기 시작한다. 혼은 항상 더욱 자신의 주변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혼은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혼이 이제 영적인 지식이 주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혼이 밝은 빛을 항상 갈망한다면, 이로써 혼은 빛의 존재와 연결되어, 빛의 존재로부터 계속되는 지식을 얻고, 도우려는 갈망으로 지식을 전해주고, 이로써 쉬지 않고 사랑을 행한다. 다시 말해 혼이 이제 높은 곳을 추구한다. 이런 혼은 항상 더욱 밝아지고, 선명하게 될 것이고, 이제 항상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 곧 어두움의 나라를 벗어난다.

혼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혼들의 고난을 통해 한번 사랑을 행하려는 결정을 한다면, 혼의 상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가운데 머무는, 단지 자신의 끔찍한 상태만을 생각하고, 다른 혼들의 고난을 전적으로 측은하게 느끼지 못하는 혼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들을 이러한 상태로 머물게 할 수 없다. 그들이 이런 상태로 머물게 한다면, 그들 안에 다른 자극이 절대로 발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상태는 항상 빛이 없어질 것이고, 그들의 고난은 항상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결국에 가서 자신의 환경을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이와 함께 자신의 고난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한 동정심이 깨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혼은 단지 사랑을 행함을 통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고, 어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빛을 향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 있는 혼들을 위해 이 땅의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도가 혼에게 능력을 주고, 혼의 위를 향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 있는 혼은 아주 불쌍하고,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이런 혼에게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전혀 사랑을 행하지 않은 결과로써 선한 생각이 저 세상에 적게 도달하는, 그러므로 그들의 상태가 절망적으로 삭막한 많은 혼들은 얼마나 기도를 받지 못해야만 하

는가! 그러나 빛의 존재들이 이런 혼들을 위해 애쓰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또한 이미 더 성장한 혼들이 이런 혼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시도한다. 왜냐하면 빛이 충분한 존재들이 전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로 임하기 때문이다.

아멘

빛의 나라에서 창조하고 조성하는 일. 인간의 눈으로 본적인 없는 나라.

B.D. No. 4291
1948년 5월 2일

너희 혼이 빛의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는 나의 임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갈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런 갈망이 성취되는 일이 축복이다. 너희는 항상 나를 향한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의 연합을 간절히 갈망할 것이다. 너희의 갈망이 성취되도록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너희는 나의 임재를 축복되게 하는 힘으로 느끼게 되고, 내적인 충동으로써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행복하게 해주려는 증가된 추진력으로 느끼게 된다. 너희가 이제 나눠줄 수 있도록 나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재물을 너희에게 제공하고, 너희를 가장 깊은 지식으로 인도한다. 이로써 너희가 항상 계속되는 행복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 이런 상태가 너희에게 모든 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제공한다. 너희는 이 땅에서 절대로 보거나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는 축복되게 될 것이다.

사랑이 너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제한이 없고, 끊임없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단지 영적인 공급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전한 상태에서 이 땅의 재물은 더 이상 너희를 자극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 재물에 대한 욕망은 불충분한 혼의 성숙한 상태의 표시이고, 절대로 빛의 상태에 도달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항상 충족시키려는 갈망을 갖게 될 것이고, 내 사랑이 항상 너희의 갈망은 충족시켜줄 것이다.

이 땅에서 자신을 형성하여, 너희가 단지 영적 재물을 갈망하게 되라. 모든 물질을 극복하고, 단지 영적인 선물을 얻으려고 하라.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축복된 상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 것을 극복하면,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나의 임재가 너희에게 확실하게 보장되고, 또한 나의 임재와 함께 힘이 너희에게 공급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힘을 행복으로 느끼게 될 것이고, 이 힘이 너희가 계속하여 나와 나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이끌 것이다. 베풀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 올바른 사랑이다. 베풀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 이웃 사랑의 정도를 정한다. 그러므로 비록 사람의 갈망이 단지 순수하게 물질로 향할지라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려는 갈망을 단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고, 이런 사랑은 나에게 인도하지 않고,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다.

나는 너희가 단지 나를 목표로 삼고, 이로써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통해 표현된 사랑이 힘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원한다. 세상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너희를 빛의 존재의 축복된 상태와 유사하게도 만들지 못할 것이다. 갈망하고 성취되는 일이 단지 나 자신이 너희의 사랑과 갈망의 대상인 영의 나라에서처럼 절대로 축복되지 않을 것이다.

(1948년 5월 2일) 너희는 이제 내가 왜 끊임없이 너희의 사랑을 구하는지 이해하느냐? 왜 내가 너희를 영원을 위해 얻기를 원하겠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 이 땅의 운명을 개선시키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가 영원히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빛의 존재로서 나의 천사들과 함께 동역하고, 놀라운 형상을 가진 창조물을 만들고, 영광스러운 것을 만드는 일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한이 없이 나의 권세와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 먼저 나와서 연합을 이루는 일이 필요하다.

나는 나의 힘을 사용하여 너희를 축복되게 하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제한이 없게 주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의 힘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가 나처럼 너희의 뜻대로 창조하고 조성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런 일이 또한 내 뜻이다. 너희의 의지를 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일이 나와서 연합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너희가 너희 의지를 나에게 종속시켰다면, 너희는 항상 자유의지로 생각하고, 원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강요받는 상태에서 일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강요받는 상태에서 일하는 일은 축복되지 못하게 하고, 너희의 온전함을 부족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빛의 나라의 모든 존재는 내 뜻으로 충만해 있다. 그렇더라도 모든 존재는 자신의 뜻대로 활동하고, 모든 존재는 나의 임재 안에 거하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영원 가운데 삶을 특정화하고, 각각의 존재가 하는 일을 깨닫는 일은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를 상상하는 일은 인간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영의 나라는 이 땅과 세상과 다른 세상이고, 그러므로 이 땅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 혼이 어느 정도 성숙할 때 비로소 사람은 보고, 영적인 느낌을 받아들이고 재현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이 육체를 떠나, 빛의 나라에 들어가면, 혼은 나의 무한한 사랑을 이해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영광들 때문에 놀란다. 그러면 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것은 어떤 사람도 본적이 없고, 어떤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아멘

저세상과의 간격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

B.D. No. 7290

1959년 2월 22일

이 땅의 삶에서 나를 멀리했던 사람과 이미 나를 찾고 빛의 의복을 입고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던 사람들 사이에 아주 큰 간격이 영의 나라에 있다. 빛의 의복을 입고 영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광경을 실제 볼 수 있고 그들의 처량한 상태를 측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에서 나를 멀리했던 사람은 자신이나 또는 같은 생각을 가진 영의 존재들 외에는 볼 수 없고 그들과 다투고 싸우면서 자신의 형편에 해를 가하고 어떤 축복도 느낄 수 없다.

이런 혼들은 절대로 먼저 떠난 사람들이 이미 높은 성장 정도에 도달한 후에 이 땅을 떠났다면, 그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어느 정도의 성장에 도달해야지만 축복된 재회를 할 수 있다. 비록 육체의 죽음 후에 모든 혼들이 들어가는 영의 나라일지라도 이런 혼들이 거하는 두가지의 세계가 있다. 이런 두개의 세계는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간적으로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각각의 나라의 상태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이는 큰 간격이다. 그러나 이 간격은 극복돼야만 한다.

빛의 나라에서 항상 또 다시 알지 못하게 빛의 존재들이 임해 혼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해야만 한다. 이 일은 혼들이 자신의 환경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게 만드는 일이고 자유의 의지로 빛의 존재를 따르게 하는 일이고 빛의 존재는 그들을 항상 자신 가까이로 인도하려고 시도한다. 다시 말해 빛의 존재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해줘야만 하고 혼들이 스스로 원하면, 이런 모든 혼들을 위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속사역에 대한 소식을 전해줘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그들과 나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고 어두움의 나라와 빛의 나라의 간격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비로소 혼이 깊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을 향하는 길에 들어서고 비로소 구속사역을 은혜가 그들에게 역사하고 그들을 서서히 이제 스스로 다시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하기 원하는 성장 정도에 도달한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감사한 빛을 청산하기 원하고 이런 감사의 빛이 그들 자신을 깊은 곳에서 아직 불행한 존재들을 돕는 일을 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다. 간격은 극복되어 야만 하고 단지 유일한 다리가 있다. 이 다리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택한 사람은 비록 그가 이 땅에서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거나 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제 나에게 인도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는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움의 영역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는 다리이다. 이 땅에서 이미 나와 연결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찾지 못하고 단지 이름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실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와 긴밀한 연결이 없고 그러므로 구속사역의 은혜를 스스로 아직 요구하지 않고 이로써 그들의 원죄로부터 구속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너희 모든 사람은 이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저세상에 도달하면, 마찬가지로 깊은 절벽 앞에 설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구세주를 구하고 찾아야만 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구세주가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 땅에서 너희의 고백이 심장은 참여하지 않고 단지 입으로만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술이 아주 크게 자주 내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심장 안을 보고 나는 입술을 통해 속지 않는다. 나는 혼이 실제 속하지 않은 곳으로 혼을 배치할 수 없다. 혼이 저세상 나라에 도달하면, 자신 앞에 큰 간격을 볼 것이다. 또는 혼이 세상을 향한 감각이 그를 속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혼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혼이 돕는 자의 소개에 저항하지 않아 너희가 곧 하나님의 구세주를 혼의 형편으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 올바르게 소개할 수 있으면, 혼에게 단지 유익이 될 것이다.

다리는 놓여야만 한다.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만약에 혼이 단지 먼저 큰 간격을 극복했으면, 혼의 의지가 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혼이 이제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갈망하고 찾으면,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하게 빛의 나라의 문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그러면 혼은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택한 것이고 나는 빛과 축복의 나라인 내 나라에서 그를 영접할 것이다.

저세상에 있는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일.

B.D. No. 7839

1961년 3월 2일

저 세상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영원 동안 구원을 받는다. 아직 어두움 가운데 거하거나 또는 여명 가운데 거하는 혼이 내 이름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으면, 가장을 한 빛의 일꾼을 통해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통해 그들에게 나와 내 구속사역을 전하면, 어두움은 그로부터 사라진다.

이미 내 이름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할 것이고 그들은 나를 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를 찾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혼들의 의지는 자유하고 자유롭게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를 영접하기까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역사하기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게 함께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빛의 존재가 성공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흘러 갈 수 있다.

그러나 이 혼을 얻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구속사역을 거론하는 곳에서 혼들이 항상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혼들이 자유의지로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고 나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게 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혼이 함께하게 부르는 일은 큰 축복이다.

왜냐면 그들이 축복되지 못한 동안 그들은 그들의 죄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불행이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형편을 나아지게 자기 자신에 대해 그들의 이 땅의 삶에 대해 그들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인 나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람들 편에서 드리는 사랑의 중보 기도를 받으면, 그들을 사랑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도우려는 의지를 느끼면, 저항은 이미 줄어든다. 그러면 저세상에서 항상 또 다시 혼들에게 제공이 되는 도움에 대한 저항도 줄어든다. 저항을 포기하는 일은 이미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런 혼들이 받는 모든 감동은 결과를 나타내 혼을 행복하게 하고 빛에 대한 갈망을 크게하는 작은 빛을 혼에게 선물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나를 찾지 못한 저세상에 있는 혼들은 나를 찾아야만 한다. 만약에 너희 사람들이 위험 가운데 있는 혼들을 자주 생각하면, 너희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혼들에게 항상 단지 유일하게 그들을 축복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알려주면, 너희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혼들에 대한 너희의 사랑하는 생각은 빛의 불씨와 같고 그들 안에 기쁨을 주는 그들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빛의 근원을 향해 추구하게 한다. 세상에서는 모든 영적인 가르침을 멀리 하면서 단지 이 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후에 어떠한 영적인 재물도 없이 저세상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이제 영적인 재물을 자유의지로 얻어야만 한다.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은 어떠한 저항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 복음을 사랑으로 그들과 같은 형편에 있는 자신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이 이런 혼들을 영접하면, 혼들은 버림을 받지 않는다.

너희의 생각이 그들을 항상 너희에게 이끌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거절했던 것을 너희들로부터 영접할 것이고 행복하게 느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사랑이 그들에게 향해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은 효과가 없이 머물지 않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어두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예수 안의 나를 찾지 못한 혼들을 자주 생각하라.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라. 너희는 특별히 종말의 때에 큰 의미가 있는 축복된 구속하는 일을 행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아직 많은 혼들이 깊은 곳으로부터 구속을 받아 종말이 오면, 그들이 새로운 파문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저세상으로부터 온 성숙하지 못한 혼의 나쁜 영향력.

B.D. No. 8204

1962년 7월 2일

내 안에서 자신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구원자를 찾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구속사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로써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닫혀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이 그들의 원죄의 죄짐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 저세상으로 가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거나 또는 여명 아래 방황하거나 또는 그들은 자주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지 않음을 모르고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며 이 땅 근처에서 방황함을 너희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혼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악한 일을 하게 자극을 받고 이를 허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유를 너희에게 설명해줄 수 있다. 종말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런 영향력은 드러나게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왜냐면 항상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저세상으로 들어 갈 때 죄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들의 악한 생각과 그들의 대적자에게 향한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적자의 영향을 받고 자신의 성품에 합당하게 사람들을 공격한다. 이렇게 이 땅은 자신들의 죄악과 정욕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려고 하고 사람들의 의지를 약하게 하는 목표 외에는 다른 목표를 알지 못하는 셀 수 없이 많은 가장 악한 영들의 무리로 둘러싸여 있다.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생각에 역사하여 그들 안에 하나님의 구세주에 대한 반항을 다시 강하게 하고 아직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잃게 만들어 큰 위험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거부하고 그러므로 가장 깊은 어두움 가운데 머무른 상태로 저세상으로 가게 한다. 너희는 이제, 왜 내가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라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그에게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대적자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한 싸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권면하는지 이해하느냐?

나는 단지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로부터 타락한 큰 죄 때문에 묶여 있고 그들 스스로는 이 묶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고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의 도움으로 이 권세로부터 자유

롭게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표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를 적게 알거나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종말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속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되고 구속되지 못한 상태로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찾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어렵게 될 저세상으로 들어갈 큰 위험 가운데 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세주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능한 동안에 모든 빛의 세계가 내 의지에 따라 그들에게 구세주에 관한 빛을 주기 위해 일하고 있다.

나 자신이 이런 지식을 이 땅에 전해주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명에 관해 모든 진리에 합당한 설명을 받고 그들이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으로 인도하는 귀환의 길을 의식적으로 갈 것이다. 저세상의 수많은 혼들이 나 자신이 이 땅의 나와 내 나라를 위해 일하려고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르침에 동참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혼들은 그들에게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길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빛을 비추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진리를 알게 되고 이를 더 이상 거부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그들에게도 주어질 구원을 위해 어두움으로부터 그들을 부르는 것을 체험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너희 스스로 그들과 대화를 통해 예수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거나 위험 가운데 있으면 예수에게 의탁하라고 알려 주면서 이런 구속하는 일을 지원할 수 있다.

그들은 너희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노력을 그들은 행복으로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그들이 이제 사람들이 깨닫고 인정할 수 있게 그 안에서 나 자신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식적으로 향할 것이다. 너희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영의 나라의 문을 닫는다.

B.D. No. 5981

1954년 6월 21일

이 땅에 종말이 오면 영의 나라의 문이 닫힌다. 인간은 죽음 이후에 혼이 더 성장하거나 가장 바깥 쪽의 어두움 속으로 다시 가라 앉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저세상의 혼의 나라에는 항상 혼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 땅에 도달하는 성숙한 정도를 높이거나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 제공되는 많은 가능성이 아직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영의 나라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혼의 많은 도움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일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혼을 돕기 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상승.

그러나 그의 상대는 그가 이 땅에서 이긴 어두움 속에서 혼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므로 가능한 한 깊은 곳으로 가라 앉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의 싸움도 영의 나라에서 진행된다. 다시 말해 둘 다 혼을 위한 싸움이 있다. 땅이 끝나기 전에 그의 속박에서 혼을 해방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연장이 위를 향한 향하든 하향으로 향하든 거기

에서도 유언장을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땅과 영의 나라에서 종말 전의 마지막에 특별한 열심으로 끊임 없는 구속사역이 있는 이유이다. 왜냐면 새 땅이 일어나기 전에 영이 너무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새 땅의 창조물이 혼을 흡수하고

그러므로 지옥은 그 안에 빠진 모든 것을 쫓아냅니다. 영의 나라는 그들의 뜻을 바꿀 희망이 없는 혼을 돌려주고, 하나님은 다시 새 땅의 창조물에서 영을 추방하다. 그러나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한 사람들도 빛을 얻기 추구하고 있고, 그들에게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수많은 조력자와 공범을 찾는다.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영적 문은 아직 활짝 열려있어 이전에 육신을 떠난 혼을 영접하다. 어떤 영적 상태에 있든 그들이 저세상에 도착해도 구원의 역사는 빛의 혼으로 영의 나라에 들어 가지 않는 모든 혼에 계속된다.

그러나 종말이 닳을 때 문은 오랫동안 닫힐 것이다. 왜냐면 추가 개발 가능성이 꺼지기 때문이다. 사탄의 봉사에 온전히 서있는 악한 영은 이제 새 땅의 창조물에서 새로운 추방을 경험하는 반면,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선하고 영적인 사람도 이 땅에 남아 있다. 다시 말해 새 땅이 부족으로 채워질 것이다 새로운 세대의. 아직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미리 불려지고, 결국에는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여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사탄의 종인 자들과 가장 어려운 믿음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하는 자들만이 있다. 새로운 섹스의 부족으로도 적합한다. 이제 이 땅에서 낙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일은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주 행복한 상태이다.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괴로움도 걱정도 없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하늘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땅은 더 이상 종말 이전의 모습이 아니다. 지옥의 번식지, 하나님의 상대가 자신의 희생자를 얻기 위해 힘을 쏟는 곳. 땅은 낙원이 되었고 이제 그 위에 거하는 사람들은 빛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이지만 아직 이 땅의 몸을 소유할 수 있고 아직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영광스럽고 새롭게 설계된 이 땅을 소유하고, 아직 결박된 영적인 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을 위한 길을 닦고, 그들의 위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영의 나라에서 의 싸움은 오랫동안 끝났지만 이제는 빛의 혼도 다시 이 땅으로 올라와 사람들에게 인도를 제공하므로 이제 영적인 성장은 새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도 보장되며 구속은 사탄의 행동이 오랫동안 꺼져 있기 때문에 형체가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므로 땅과 영의 나라에 평화가 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B.D. No. 6354

1955년 9월 13일

나는 너희를 행복과 생명을 위해 창조했고 죽음을 위해 창조하지 않았고 너희를 내 사랑과 지혜와 일치하지 않게 무가치하게 존재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런 상태는 절대로 온전한 상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타락한 너희의 운명이다. 너희는 완전히 온전하게 나에 의해 생성되었다. 그러나 너희의 현재의 상태는 전혀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한 상태이고 오히려 반대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완전히 다른 형체를 취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

희 자신의 잘못에 의해 피조물이 되었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불릴 권리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한때 창조한 존재는 가장 온전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는 이런 온전함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는 내 소유이다. 왜냐하면 존재는 내가 내 피조물 안에 내 힘을 표현한 내 힘이기 때문이다. 이 힘은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나에게 속한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처한 상태는 너희가 나로부터 끝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는 너희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생명은 사랑과 지혜로 힘을 사용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일할 힘이 없고 활용할 지혜와 사랑이 없다. 비록 내가 너희의 출처이지만 너희는 죽은 피조물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하고 너희가 다시 나에게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 이로써 내가 너희에게 빛과 힘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이 힘을 내 뜻 대로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너희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언젠가 이 사명을 성취시킬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너희가 생명이 되도록 너희를 창조했고 나는 너희가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 자신이 너희를 돌보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로 생명에 도달할 수 없고 힘이 없이는 너희가 절대로 끊임없이 생명을 누리는 영역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힘을 공급해줘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 힘을 받아드려야만 하고 한때 너희가 아직 내 가까이에 있고 축복을 받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내 힘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너희가 한때 자원하여 나에게서 등을 돌린 것처럼 너희는 다시 나에게 향해야만 한다.

너희가 나를 힘의 원천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나를 너희를 생명으로 생성되게 한 아버지로 인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한때 나를 떠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완전히 바꿔야만 한다. 너희가 빛과 힘이 충만한 가운데 영원히 축복되기를 원하고 너희의 사명 대로 살고 역사하기를 원하면, 너희는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돼야 한다.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너희를 신적이고 온전한 존재로 만든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너희의 자유의지가 이런 변화를 일으켜야만 한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다시 돌려주기 원한다. 왜냐하면 내 사랑은 절대로 너희에게 축복이나 성취를 의미할 수 없는 죽은 상태로 너희를 놔두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또한 생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내 형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항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나에게 전적으로 의탁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저항하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너희의 저항을 멈추라. 그러면 내가 모든 영광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영원으로부터 생명 자체인 분을 부름으로 죽음을 벗어나라. 죽음의 밤 깊은 곳에 머물지 말고 너희의 속박을 풀 수 있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는 분을 부르라. 너희가 한때 너희의 배교와 너희에게 생명을 의미하는 그 분의 사랑을 거부한 일을 통해 지은 죄를 지었던 분을 인정하라. 너희가 단지 그 분의 사랑의 힘을 갈망하고 너희를 그 분에게 드리면, 그 분은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그 분의 사랑의 힘을 제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나기를 원한다. 너희는 절대로 무기력하게 느끼지 않게 될 것이고 곧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깨달을 것이고 너희가 누구였는지 너희가 누구이고 너희가 다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전적으로 의식하는 한때 가졌던 온전함에 도달하기 위해 추구할 것이고 생명을 갈망하게 될 것이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빛과 힘을 가지고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불행하고 죽은 존재에게 다시 생명을 주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너희의 모든 사랑을 드리게 될 것이고 이제 내 자녀가 될 것이고 영원히 내 자녀로 머물게 될 것이다.

아멘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나라가 아니다.

B.D. No. 6397

1955년 11월 10일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도달하려고 수고하는 것은 내 나라에서 너희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기쁨과 축복과 저세상의 기쁨과 축복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 두 가지는 그들의 요구가 서로 반대되고 그들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도 반대가 된다. 그러나 나 자신이 거하는 영의 나라가 너희에게 단지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을 줄 수 있다. 너희 사람들은 항상 너희의 이 땅의 기간이 단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적게 모았을지라도 모은 것을 놓고 가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히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깨달음 가운데 너희 육신의 죽음 후에 가치를 잃지 않는 부를 위해 애쓰는 일이 진실로 너희에게 조언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이 말을 내 입을 통해 듣는다. 너희는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긴급하게 심장 안에서 세상적인 추구를 뒤로하고 대신에 쇠하지 않는 영적인 재물을 얻으라는 말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너희에게는 단지 세상적으로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가치가 있다. 이에 합당하게 또한 너희의 깨달음의 정도가 정해지고 너희가 너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내 대적자가 그의 나라인 세상의 유혹을 통해 너희에게 역사할 수 있고 너희가 세상 재물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깨달음의 정도는 항상 낮아질 것이고 낮은 상태로 머물게 될 것이다.

두 주인 사이에 타협은 없고 너희는 결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결정에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다. 너희 자신이 너희의 결정을 통해 육신의 죽음 후의 너희 운명을 정한다. 너희는 모든 자유함 가운데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영의 나라가 실제 너희에게 모든 영광을 가진 절대적인 진리라는 보장을 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에 대한 증거를 통해 영의 나라를 위한 결정을 하도록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땅의 세상은 너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의 나라를 모든 감각으로 추구한다.

그러나 너희 육신의 죽음은 확실하고 너희는 육신의 죽음을 예상해야만 한다. 너희는 내적으로 생각해보는 일을 통해 너희 혼이 존재하는 일을 마칠 수 없다는 확신에 도달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창조의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런 창조의 작품의 특징을 통해 단지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불쌍하게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높은 목적을 섬겨야만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삶의 목적으로 만족

하지 않는다. 그는 실제적인 존재하는 목적을 대한 설명을 구하고 그는 그의 의지와 그의 진리를 향한 자세에 합당하게 설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대적자의 나라로부터 그에게 이런 설명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고 이런 설명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은 나라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이런 설명은 모든 사람의 목표가 내가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을 그에게 증명해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의지가 그가 생각할지 진리를 추구할지 또는 이 세상의 제물로 만족할지를 정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또 다시 내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한번 이 말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 내 나라로부터 그를 내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마중 나가는 길인 이 나라를 향한 길로 발걸음을 이미 옮긴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뒤에 뒤야만 하고 자유의지로 내 대적자의 나라와 결별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항상 내 나라로 인도하는 문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 그는 스스로 또한 한때 영원 가운데 자신의 운명을 정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다.

아멘

세상 앞에 고백하라.

B.D. No. 6607

1956년 7월 27일

너희가 세상 앞에서 나를 대변한다면, 나는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백하기를 원한다. 내가 인간 예수로서 이 말을 제자들에게 말했고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왜냐하면 내 모든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향한 말씀이고 내 모든 말씀은 내가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에 속하기 때문이다. 비로 이런 말씀을 특별하게 평가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말씀은 인간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너희 자신이 나를 믿어야 할뿐만 아니라 너희는 또한 이웃 앞에 너희의 믿음을 표현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 세상 앞에서 내 이름을 대변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아버지인 내 영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내적으로 나를 믿는 일로 만족하지 않고 너희가 나와 내 구속사역을 의심하지 않는 일로 만족하지 않고 너희가 또한 아마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부를 수도 있는 이런 일로 만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전적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믿음이다.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는 내면에서 항상 예수 안의 나를 생각하도록 이끌림을 받고 그러면 그의 입이 침묵할 수 없다. 그는 너희 사람들을 죄의 밤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이룬 나를 향한 내적인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큰 영적 위험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 가운데 이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기 위해 그들을 돌보아야만 한다. 그렇게 되도록

이웃이 나를 선포하고 예수 안의 나를 고백하고 이제 또한 나와 내 이름을 위해 큰소리로 증거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람이 내면에서 체험하고 생각하는 것을 이웃은 깨닫지 못한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구세주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줘야만 한다. 이일은 하나님의 구세주를 찾았고 이제 내 긍휼의 역사에 대해 말하는 일을 통해 나를 믿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나에게 증명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간증을 통해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나와 내 이름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내 이름을 찬양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소개하고 나를 위해 이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물질의 걸형체로부터 최종적으로 해방되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산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든지 간에 사람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왜냐면 내가 예수 안에서 구속 역사를 완성했고 자신의 사슬로부터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이제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큰 소리로 찬양한다. 그는 항상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역사에 대해 말하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모든 묵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드렸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의 역사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지 않고 모든 이웃들이 깨달을 수 있다. 왜냐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면, 입이 조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이자 구세주로 온 세상에 고백하고 이웃들을 그에게 인도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위험이 자신을 위협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의 숨결로 모든 것을 파괴하기에 충분하고 이미 죽음에 처한 존재가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는 일이 단지 그의 의지로 충분한 분이 모든 위험을 피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생명이 깨어난 사람은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마지막 결정을 요구받으면, 그는 또한 나와 내 이름을 위해 자신을 드릴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를 위한 사랑으로 나와 내 이름을 위해 자신을 드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면 그가 온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하기 때문이다.

아멘